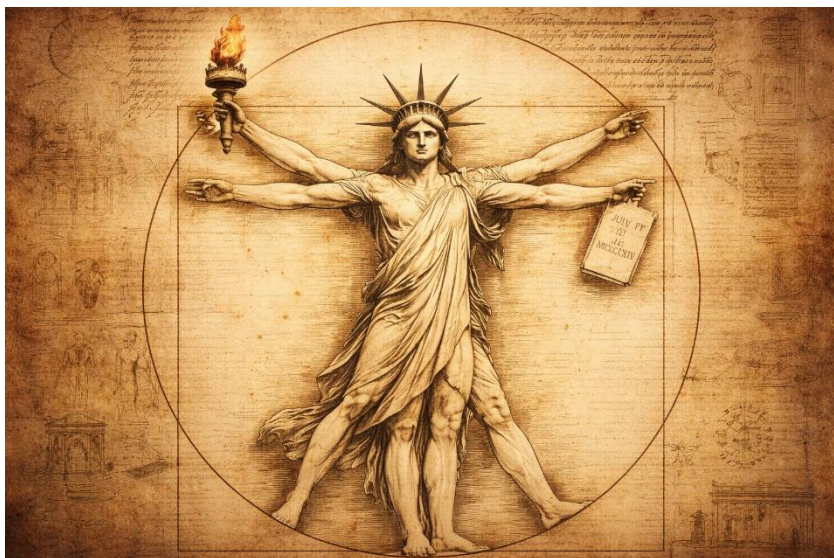




# 인간적 미덕

이낙희 신부 편집

## 차례

|                           |    |
|---------------------------|----|
| 머리말.....                  | 5  |
| 01. 사교성 .....             | 7  |
| 02. 성취된 삶과 타인과의 관계 .....  | 10 |
| 줄타기 곡예사.....              | 11 |
|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 12 |
| 타인을 동반하는 기쁨 .....         | 14 |
| 섬기는 기쁨 .....              | 15 |
| 03. 우정, 호의와 다정함.....      | 17 |
| 연속성과 조화.....              | 19 |
| 함께 살아가는 덕들.....           | 20 |
| 04. 감정과 미덕 .....          | 24 |
| 애정의 교육 .....              | 27 |
|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 28 |
| 05. 일을 잘하기 위한 덕목 .....    | 30 |
| 밀가루 서 말 .....             | 31 |
| 온 세상이 제대입니다. ....         | 34 |

|     |                              |    |
|-----|------------------------------|----|
| 06. | 타인을 신뢰하는 것.....              | 37 |
|     | 신뢰는 신뢰를 낳습니다.....            | 39 |
| 07. | 진리를 말하기.....                 | 41 |
| 08. | 문화에 대한 관심.....               | 45 |
| 09. | 마음의 단순함으로 살자.....            | 49 |
| 10. | 내적 자유,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기쁨.....  | 52 |
|     | 자유는 단지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 53 |
|     |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 54 |
|     | 자유는 제한적이다.....               | 56 |
| 11. | 절제.....                      | 58 |
|     | 하늘 나라는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      | 59 |
| 12. | 호기심과 절제.....                 | 65 |
|     | 이기적인 시선.....                 | 67 |
|     | 절제의 열매.....                  | 68 |
| 13. | 용기.....                      | 70 |
|     |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 71 |
|     | 때때로 최선의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 72 |
|     | 끝까지 나아가기 위한 안내.....          | 74 |
| 14. | 하느님과의 정의.....                | 76 |

|                                            |    |
|--------------------------------------------|----|
|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 77 |
|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십니다.....                   | 78 |
| 15.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의.....                     | 81 |
| 16. 신중함의 지덕. 일을 실천에 옮김. 좋은 소망을<br>이행함..... | 85 |
| 거짓 지덕.....                                 | 86 |
| 숙고하기. 생각하며 멈춤.....                         | 87 |
| 결단하기. 길을 선택함.....                          | 89 |
| 행동으로 옮기기.....                              | 91 |

## 머리말

성 호세마리아 신부님은 인간적인 덕행은 초자연적인 덕행과 영성 생활의 토대라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는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먼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실, 질서, 정의와 같은 인간적 덕행 없이는 영성 생활이 견고한 바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경탄하고 주로 따라다니지만 그 인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진실로 믿음이 깊어 보이지만 초자연의 덕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덕을 몸에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고랑 652).

인간적 미덕은, 신앙과 희망이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드러나기 위해 근면, 충실, 기쁨, 강인함과 같은 덕행들을 필수적입니다.

결과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생활의 일치 안에서 통합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덕행인 향주삼덕(신망애) 중 '사랑(애덕)'은 모든 인간적 덕행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일치를 이룹니다.

## 01. 사교성

도덕적·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사교성이 곧바로 덕이고 고독이 곧바로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유와 방식,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태도는 언제나 그 지향과 동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교성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또한 인간이 혼자 구원받지 않고, 혼자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사교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 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적 기질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회적 기술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타인의 인정을 999 갈망하거나 내적 침묵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덕은 단순히 많이 말하고 많이 어울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덕은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경청과 존중,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도 깊은 사랑의 덕, 곧 애덕을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상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고독 역시 그 자체로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잠시 선택한 고독은 오히려 매우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성찰과 기도, 창조성과 깊은 사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홀로 물러나 기도하셨고, 수도자들의 삶 역시 고독 속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고립은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이나 교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 혹은 타인에 대한 체계적인 거부에서 비롯된 고독은 인간을 점차 메마르게 합니다. 문제는 혼자 있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과 친교, 곧 코무니오에 자신을 담아버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덕의 관점에서 보면, 덕의 핵심은 사교성이 아니라 애덕입니다. 마찬가지로 덕은 고독이 아니라 내적 자유와 관련됩니다. 덕 있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며,

혼자 있으면서도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바로 인간적·영적 성숙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교적인가, 아니면 고독한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태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적 결핍 때문에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성장을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숨기 위해 고독을 택하는지도 성찰해야 합니다. 관계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깊은 인격적 만남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사교적인 성인도 있고, 침묵 속에서 살아간 성인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살아간 성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02. 성취된 삶과 타인과의 관계

하느님은 홀로 살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 결합된 세 위격의 가족, 삼위일체이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전달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샘이십니다. 각 위격은 자유로우며, 온전히 다른 위격들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이 논리로 다스리십니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순간은, 오직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뿐입니다.

모든 덕은 다른 사람과의 일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덕은 개인적 완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결코 고립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덕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진정한 덕은 타인과 떨어져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덕이란 자기 자신을 소유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줄타기 곡예사

높은 곳에 달린 줄 위를 건너가는 줄타기 곡예사를 상상해 보자. 관객들의 시선 앞에서 말입니다. 날마다 그는 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같은 길을 갑니다. 그 안에는 대담함과 신중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도 위험을 즐깁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그 목표는 세심한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에게는 매일 현기증을 이겨내고 쉬지 않고 연습을 반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 예를 들어 정돈하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 시간과 훈련으로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거나 친절하게 감사를 표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가? 줄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이러한 선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때에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일부 자기계발서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제공하며, 행복을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과 동일시합니다. 마치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일종의 좌절이거나, 개인적 발전에 장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자 하느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당신의 모든 존재를 성부로부터 받으십니다. 이러한 자녀됨은 예수님이 모든 일에서 기쁘게 성부의 뜻을 행하도록 이끕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는 자녀로서의 성격을 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직 알지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사실로부터 다른 인간관계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이고 가족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생각해 보자.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결합되어 살아가고, 서로의 애정에 의지하여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유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더

충만한 기쁨으로 이끕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웁니다.

게다가 덕은 타인 덕분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조언과 교육 덕분에 성장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는 우리의 이성을 확고한 원리들로 밝혀 줍니다. 그 원리들을 삶으로 옮길 때, 덕이 형성되고 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범 또한 가르침의 원천입니다. 절제하는 가정은 자녀들을 절제 안에서 교육합니다. 세심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작은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모든 인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모범으로 성인들의 삶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성인들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 안에서 실현된 덕을 봅니다.

## 타인을 동반하는 기쁨

오늘날 우리의 일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인간 모델을 제공하지만,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타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1 코린 12,27).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으로 행해진 우리의 가장 작은 행위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됩니다. 산 이와 죽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 사이의 이러한 연대는 성인들의 통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53 항).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울 때 더 나아질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말했듯이, "아무도 홀로 떨어진 구절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서로 돕거나 해를 입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사슬의 고리들입니다"("하느님의 친구들", 76 항).

우리는 종종 카드로 탑을 쌓는 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카드들은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관계의 직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성장은 보다 쉬워집니다.

모든 덕은 관계적 성격을 지니며, 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도 우리를 타인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한 선을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덕행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촉진할 수 있는 덕은 없습니다. 각각의 덕은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76 항).

## 섬기는 기쁨

우리 모두는 자녀이며, 동시에 각자의 고유한 소명에  
따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타인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호의를 베풀기 위해 빨리 달려갈 때, 타인의 행동을

자비로 판단할 때, 필요할 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성모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그녀를  
돌볼 줄 아셨고, 카나의 혼인 잔치가 행복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쓰셨으며, 칼바리오에서는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평온함으로 당신 아드님을  
동반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는 데에 헌신하셨습니다.

### 03. 우정, 호의와 다정함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우정은 덕이거나, 어떤 경우든 덕이 따르는 무언가입니다. 또한 그것은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55a)라고 여겨왔습니다.

우정이 견고해지고 성장하려면 친구들이 서로의 내면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자세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정은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것, 상호성, 친밀감, 다정함, 안정성,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친구들 사이의 답음"(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123 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 호의는 아마도 이러한 자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어떤 유익-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것조차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호의는 우리 친구들을 향한 애정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문제, 결점, 개인적인 역사, 환경,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과 함께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F. 오카리스, 서한, 2019.11.1, 8 항).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다정함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다정함은 "약한 자들의 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다정함은 마음의 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연민,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개방성을 나타냅니다"(프란치스코, 2013.3.19).

다정함은 비옥한 땅이며, 매일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안에서 친밀감과 신뢰가 자랄 수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여러분 각자는 나처럼 다정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정함은 애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둘 다의 존재 방식에 잘 적응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친밀한 순간에, 예수님은 정확히 발 씻기를 원하지 않는 베드로와 씨름하시지만(요한 13,6-11 참조), 또한 요한이 당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도록

허락하십니다. (요한 13,23 참조). 친구의 다정함은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의 사생활과 존재 방식을 존중합니다. 다정함은 침범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조용한 현존을 제공합니다.

## 연속성과 조화

우정의 또 다른 필요한 요소는 관계의 연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내면이 갑자기 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관계는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있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거기서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오직 그런 인내 속에서만 우정이 진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2015.9.13).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를, 함께 있기를, 각자에게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단지 그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이거나

지적인 확신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 16,22).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과 소통은 우정을 강화시켜 거리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특별한 조화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채우는 좋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의 것을 함께 즐기게 되며, 당연히 그를 슬프게 하는 것에 함께 슬퍼하게 됩니다. 친구는 다른 친구를 진실하게 끌어당기는 것이지, 다른 이해관계를 우정으로 가장해서 설득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 함께 살아가는 덕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정보다 마땅히 선호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이 덕 있는 이들을 결합시키고, 덕을 보존하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군주론”, I, X)라고 말합니다.

덕의 길은 우정 관계의 동반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가꾸는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알아보고, 그 내적 아름다움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준비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더 적합한 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살아가는 덕들입니다. "각자가 지니고 다니도록 부름받은 우정의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친절함, 명랑함, 인내, 낙관주의, 섬세함,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만드는 모든 덕들을 기르는 것은 사람들이 환영받는다 고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정한 입술은 많은 친구를 얻고, 상냥한 혀는 화답을 부릅니다.'(집회 6,5).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려는 투쟁은 우정 관계가 더 쉽게 생겨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F. 오카리스, 서한, 2019.11.1., 9 항).

우정의 영역에서 자신의 성격의 어떤 측면들이 다듬어져야 하는지, 또는 어떤 측면들이 친구에 의해 용인되어야 - 심지어 사랑받아야- 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구별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해 노력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수줍음이 많다면, 좀 더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강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며, 무표정한 경향이 있다면, 내가 느끼는 것을 더 표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결국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완고한 긍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런 함정을 피하도록 모두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가끔 그대는, 정신이 산만하거나 또는 녀을 잃곤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무미건조하고 수줍은 것이 그대의 성격이라고 변명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 깊게 알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설마 그런 변명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겠지요?" (“밭고랑”, 755 항).

모든 우정은 받는 선물이며, 받아들여지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먼저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사랑조차도 그분께 전해진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 15,9).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덕들을 기르는 것 외에도,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의 관계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넓어집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으며, 하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은 '신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 나와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로 만들며, 이 일치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의 우리로 변화시켜 우리의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게 하고, 결국 하느님께서 '모든 이 안의 모든 것'(1 코린 15,28 참조)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16 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8 항).

## 04. 감정과 미덕

많은 계명을 지키는 데 익숙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마르 12,28)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르 12,30).

예수님께서는 영적 생활이 "불안하고 강압적인 순종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사랑을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2020 년 10 월 25 일).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성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길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필리 2,5).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행동하신 것처럼 느끼고 행동 하십시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중요합니다. 교회 교리서는 정념과 감정이 "인간 정신의 자연적 요소이며, 감각적 삶과

영적 삶 사이의 통로를 구성하고 연결 고리를 확보한다"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64 항).

예수님께서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요한 11,35 참조), 예루살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장사꾼들 앞에서 단호하게 반응하셨음을 (요한 2,13-17 참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가득 차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11,25).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나 정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사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도해서 무언가를 실행할 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로 결정하거나 아픈 친구를 방문하기로 할 때입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 앞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욕적이라고 여겨지는 말 앞에서 분노, 사랑하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서 슬픔, 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귀중한 무언가 앞에서 시기심.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생기는 이러한 정신적 현상들을 감정 또는 정념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공로도 죄도 아닙니다. 감정은 "이성과 의지에 의존하는 한 도덕적 자격을 받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67 항).

즉,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점차 더 잘 맞도록 감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건 앞에서, 박수를 치거나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제안하는 기쁨이나 열정과 같은 정념이 생깁니다.

반면에, 나쁜 사건 앞에서는 꾸중이나 거리두기를 제안하는 분노나 슬픔과 같은 정념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정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틀릴 때는 장애물이 됩니다.

즉, 감정과 애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 내면 세계를 교육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려지고, 자주 나타나는 그대로의 감정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애정의 교육

나쁜 정념을 억제하거나 특정 행동을 차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의 세계를 형성하여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성적 경향, 알고자 하는 욕구, 일하고 친구를 가져야 하는 필요성, 주변 사람들과부터 존경을 받는 것, 의미와 초월을 추구하는 것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을 충족시킬 때, 감정이 생깁니다. 기쁨, 감사, 평온. 그러나 경향이 좌절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화, 혼란, 비관주의.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무질서하게 합니다. 게다가, 받은 교육, 도덕적 환경이 모든 것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 미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적 미덕은 초자연적 미덕의 토대를 이룹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74 항). 미덕은 선한 행위를 쉽게 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계산을 쉽게 합니다. 수학자는 지적 미덕인 학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큰 노력 없이 합리적인 것을 먹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절제의 미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없는 사람은 합리적인 것에 자신을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반대 악덕인 탐욕을 가진 사람은 마땅한 것보다 쉽게 더 많이 먹을 것입니다.

덕은 자유로운 행위의 반복을 통해 얻어지며, 정확히 선택하기 때문에 실행됩니다. 선택해 보이지만 두려움이나 선과 무관한 다른 동기로 실행되는 행위는 우리를 유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선한 목자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을수록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요롭고 충만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덕을 발전시키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미덕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다양한 선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반면에, 악덕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악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정을 본받고 미덕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인간으로서 충만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해 줍니다.

## 05. 일을 잘하기 위한 덕목

예수님께서서는 설교하실 때 자주 일에 관한 예를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밭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 집안을 쓸어내는 주부 등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만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어 마침내 온통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루카 13,20-21)

하느님 나라는 역사 안에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우리의 일상 노동을 통해 조금씩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자리, 경제적 효율성, 혹은 사회적 명망을 언급하시는 대신에 빵을 생각하셨습니다. 빵은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빵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빵은 보통 최상의 상태로 몇 시간만 지속됩니다.

## 밀가루 서 말

반죽을 작업하는 이 여인의 장면을 묘사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밀가루 서 말"을 언급하십니다. 그 양으로 백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의 선에 기여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한 그렇게 많은 빵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도전에 맞서며 "온통 부풀" 때까지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루카 13,20).

시작한 일을 끝내고 잘 끝내는 것은 용기, 집중력, 인내, 시간 엄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여인처럼 일하려면 게으름을 극복해야 하는데, 게으름은 대개 "싸워야 할 첫 번째 전선"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서한 2, 10 항)

성 바오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나태함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일에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2 테살 3,10-11)

다소 불쾌한 의무라도 기쁨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사랑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한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기 분야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감 때문에, 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열정 때문에 어떤 일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동기들은 자기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입니다. 일중독자는 일에 과도하게 전념하여 다른 것들에 쓸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의 일은 책임감 있고 완벽해야 합니다. 인간의 일이 완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최선이 때로는 좋은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을 잘 하되 집착이나 강박 없이, 그러나 항상 마무리하고 마지막 돌을 놓으며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십시오." (성 호세마리아, 서한 36, 38 항).

문제는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삶에서 일에 부여하는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일은 일 자체를 넘어서는 틀 안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목표와 기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사람들과 다른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빵 반죽을 하는 여인의 이미지는 일하는 가장 좋은 이유를 우리 눈앞에 제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선물로,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일만 하고 사물을 만드는 데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일은 사랑에서 태어나고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48 항)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할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물의 논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랑은 다른 사랑을 낳고, 한 미소는 다른 미소를 낳아 하나씩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인 이 여인의 사랑은 그녀가 손으로 작업한 빵을 받는 사람들을 그녀의 선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누룩입니다.

온 세상이 제대입니다.

밀가루 서 말에 대한 언급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맘레에서 그들을 방문한 세 명의 신비한 남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바친 것과 같은 양이며(창세 18,6 참조), 또한 기드온이 주님께서 천사의 불로 소비하신 제물을 바치기 위해 사용한 양이기도 합니다. (판관 6,19-21 참조).

주님께서서는 이 여인의 일이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임을 상기시키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미사에 우리의 일을 결합시킬 때 우리의 일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것, 우리의 노동 시간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한 제대가 됩니다." (성 호세마리아, 묵상, 1968 년 3 월 19 일)

요약하면, 우리의 직업 생활이 하느님께 기쁨이 되려면 일은 객관적으로 선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줍니다. 정당한 임금, 시간, 존중, 인정. 계약, 일정, 책임을 이행합니다. 사기, 부패, 권력 남용이나 착취를 거부합니다.

근면 또는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일하는 것, 즉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세무 사항에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급한 결정과 날림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피로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하며, 실패로부터 쓰라림 없이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밀가루로 손을 더럽힌 그 여인은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토록 많은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일에 집중하시어 요셉과 예수님 그리고 몇몇 이웃들을 위해 빵을 만드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 06. 타인을 신뢰하는 것

어느 누구도 외로운 시구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적인 시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11 항). 우리 모두는 자녀됨, 형제애,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의지한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회생활이 때때로 우리를 개인주의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광포한 물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충만하게 실현됩니다. 관계는 제한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교육, 성격이 비슷한 경우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의 질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고독하게 군중 속에서 길을 잃고, 다른 이들은 동반자가 되고 동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사도들과, 거룩한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복음서는 훗날 교회의

기둥이 될 이들의 결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결점을 보지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보셨지만, 그분은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거친 사람들은 사랑받고 선택받았음을 알았고, 누구도 감히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신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충신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의 힘과 마음을 넓혀주었고, 놀라운 충실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우정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신뢰를 베푸십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면, 우리는 더 큰 자존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시고 진정한 우정을 쌓으셔서, 그들을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신뢰는 신뢰를 낳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하느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계획과 꿈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그것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임을 압니다.

타인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금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신뢰를 부르며, 상처받을 위험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의 이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를 위한 기초이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할 때, 우리는 경청과 이해 그리고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낙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믿고, 그들의 잠재력을 투사하며,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결점들을 넘어서서 항상 사물의 좋은 면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타인의 결점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한 위험들에 대해 경고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자유의 분위기와 신뢰의 분위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우리가 사물에 대해 제시하는 명확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나 미리 준비된 답변을 주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며 그를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쪽 모두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보다 단서를 더 많이 주면서,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더라도 말입니다. 각자가 지평선을 발견하고 목표를 정할 때,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우리 내적 동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신뢰는 애정이 있는 곳에서 생겨납니다. 타인의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07. 진리를 말하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4,6). 스승님께서 오직 참된 말씀만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깊이 사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뜨거운 바람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투명하며, 당신의 진리와 자비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 중 하나는 요한 복음 6 장입니다. 몇 안 되는 빵과 물고기를 늘리시어 군중을 놀라게 하신 직후,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라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할 것을 잘 아시면서도,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한 6,54).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 이 실패는 단지 일시적이고 겉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 세기를 거쳐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고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택하십니다.

"진리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진리는 요구하며, 불태웁니다. 불에 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칭거, “하느님과 세상”, 209).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방식대로, 말씀하셔야 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 사형 선고를 받기 며칠 전, 그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꾸짖으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 23,33).

이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죄인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잘 요약합니다: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진리가 그대에게 죽음을 가져온다 해도"(길 34).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을 오류와 거짓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애에서 진리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우세한 구절은 많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에서 그분 자신이 확언하시듯이,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 18,37).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 이미 두려움 없이 말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전파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앞에 끌려갑니다.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하였느냐?" (사도 4,7).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더욱 명확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4,19-20).

거짓된 신중함은 우리로 하여금 아침하는 담화를 만들거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화한다는 것이 항상 갈등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 낙관, 젊음, 기쁨, 평화"를 제공합니다. (사랑의 담금질, 103). 그러한 사랑과 진리 없이는 세상에 선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진리의 전달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기회를 기다리거나 우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유도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참조: 요한 8,32), 오직 진리와 함께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그것이 복음화의 의미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진리는 진정한 기쁨과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고랑, 185).

## 08. 문화에 대한 관심.

실천적 지혜는 문화와 과학,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 만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덕목이며, 끊임없는 배움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우리가 역사와 예술, 일상 속 다양한 모습들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온전한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깊은 공감은 물론, 타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테네에서의 성 바오로를 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17,16).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를 보면서 내적으로 격분하는 바오로를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을 쓴소리나 무례함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는 땅을 탐색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회당에서 그의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는 거리에서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에게 말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과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성 바오로는 그들 도시의 건축물을 세심히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에게 눈높이를 맞춰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본질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이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만큼은 저하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아레오파고스에서 행한 연설은 때로 우리에게 다시 읽을 가치가 있는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도시를 거닐며 발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세워진 제단의 아름다움을 먼저 칭송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대화 상대자들과의 거리감을 좁혀주며, 그가 전하고자하는 신비로운 하느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성 바오로는 그리스 시인들의 다양한 문학적 구절을 이용하여,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리를 향한 연설을 펼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현존하게 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닌 ‘강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현존 하심을 설명하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의 부활을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성 바오로는 교양있는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청중의 대다수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사도 17,32)라며 정중히 자리를 뜬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은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날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스라는 여인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

성 바오로의 삶이 녹아있는 이 구절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할 언어조차 잃어버린 오늘날의 문화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 바오로는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1 코린 9,20)

완전한 성장에 이른 사람은 타인은 진리에 매료되게 하고, 그들이 진리의 숭고한 언덕을 오르는 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지지와 존중을 드러냅니다.

## 09. 마음의 단순함으로 살자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삶이 미로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내적 혼란과 외적 혼돈의 순간들, 머리는 가득하지만 마음은 텅 빈 날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 때문이거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현실을 수없이 분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어떻게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의도를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복잡함을 향한 우리 경향의 뿌리를 성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두 가지 자세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겸손과 의탁입니다.

모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흔적을 남깁니다. 하느님께서도 창조 안에 낙원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인간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제시합니다. 악마는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장난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교묘한 의도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불안하고 계산적이며  
걱정에 사로잡힌 영혼으로 변화시킵니다.

악마는 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됩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창세 3,1). 적은 우리가  
의심하도록, 복잡한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제안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느님을 불신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문제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평온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뢰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열등감을 겪고 있거나, 자존감이 약하거나, 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에는 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  
리듬은 삶과 때로는 성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경쟁이 압박을 가하며 결국 과도해지는 야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한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좋은 태도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어제’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잘하십시오." ("길", 253).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입니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마태 6,34).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또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고 오늘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집중하고 재능을 더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겪은 사건들을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오늘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이 순간에만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 내적 자유,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그분은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루카 4,17-21).

이 말씀의 첫 번째 선물은 자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맹목적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자유는 단순한 선물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지켜야 하며, 다시 노예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 자유는 단지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도 나를 강요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인 자유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초콜릿 케이크나 과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뇨병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즉, 더 많은 대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는 것은 큰 자유감을 줍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단혀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속의 부재는 큰 자유감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결정을 지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의 부재는 단지 첫 단계일 뿐입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매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박해는 자유를 끝내려는 시도이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곳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항상 어떤 음식을 선호할지 선택할 수 있었거나, 파트너를 바꿀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대의에 헌신했고, 그 헌신을 끝까지 실천했기 때문에 자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습니다» (마태 13,44-46). 이 짧은 비유들의 주인공들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들은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어떤 것에 완전히 헌신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할 수 없다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매일 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선택의 자유가 자유의 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더 깊은 측면, 즉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를 향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차원은 헌신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헌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 지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헌신하는 프로젝트나 사람은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만든다. 즉,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한다. 가족, 직업, 성소 프로젝트 등이 더 가치 있을수록,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은 순간의 변덕에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내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마도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 않거나,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선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아마도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한다. 더 헌신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더 많이 걸고, 따라서 더 완전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다.

## 자유는 제한적이다

때때로 현대 문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종종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제한적이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가족, 교육 등이 우리를 많이 제약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자유를 꿈꾸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 좋으며, 거기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한 작가는 천사들이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날 수 있을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 세, 2006 년 8 월 5 일).

## 11. 절제

한밤중이 다가옵니다. 마을은 나그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서 한 젊은 나자렛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남편의 팔을 잡고 걸어갑니다. 두 사람은 밤을 보낼 마룻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상에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시지만, 하느님은 거의 길바닥에 가까운 곳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난로의 안전한 따스함을 주지 않고, 역사를 뒤흔드는 신성한 전율을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12월 19일).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의 구유를 아름답게 꾸며 왔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아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선택으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그날 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의 보물을 공유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들이 받은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안락함이든 선택하실 수 있었던 창조주께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의 결핍을 선택하십니다.

## 하늘 나라는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

"우리는 좋은 날씨와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장합니다": 날씨가 매우 자주 바뀌는 도시의 한 보험 회사 입구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씨가 될지 결정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보장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이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 5,3). 스승께서는 자신의 안전과 부를 하느님께 두는 이들에게 땅과 하늘에서의 행복을 주십니다.

절제의 덕은 물질적 재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절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재화를 축적하는 데

중심을 두지 않으면서 사물을 소유하고 즐깁니다. 행복이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의 중심을 사물에 둘 때, 그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반면에 절제하는 사람은 단순한 즐거움, 사람들, 하느님과 더 쉽게 연결됩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돈과 사회적 지위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강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진정한 기쁨이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연대로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각자가 찾아야 할 조화

겉보기에 상반되는 두 극이 있으며 이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마음이 피조물로 만족하지 않고 창조주를 열망한다는 표현이 되는 진정한 가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사랑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의 가난의 도전이다: 사물로부터 초연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어야 할 하느님의 선물로 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 재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겸손한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직업으로 생계를 꾸리셨기에 마을에서 알려져 계셨습니다. (마태 13,55 참조). 좋은 옷을 입으셨다. (요한 19,23 참조). 참석하신 몇몇 식사는 풍성했으며,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마태 11,19 참조). 마태오, 자캐오, 아리마태아의 요셉 등 좋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여러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분의 선호도 분명합니다. 부자들과 비교하여 가난한 과부를 하느님과의 관계의 모범으로 두셨습니다. (루카 21,1-4 참조). 가난한 라자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고, 그의 옆에 살던 부자는 저승에 머물렀다고 설명하셨다. (루카 16,19-23).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태 19,24)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루카 10,4-11 참조). 그분 자신도 남의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남의 무덤에 묻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얽매이지 않고 피조물을 즐기십니다.

이 두 측면 사이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슬기로 가능합니다. 각 경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소유하거나 저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피조물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친구들, 118 항).

옷차림의 품위에 관해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일상생활의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처지, 환경, 가족, 일에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동료들처럼,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친구들, 122 항).

마지막으로,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빈번한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필요를 만들지 말 것, 가진 것을 돌볼 것, 한동안 무언가를 포기할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 불편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무언가가 부족할 때 불평하지 말 것 등.

## 궁핍한 이들과의 연대.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최고 부유함의 증거로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도록 부름 받습니다. 반면에 평신도는 가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얻어야 하며, 그들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검소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 안에서 궁핍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궁핍하고 경멸 받는 사람도 하느님의 모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우리를 자극하고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들의 소외와 고통을 없애거나 적어도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영적 가난을 도울 수 있을까?"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11월 15일).

평신도들은 "매일 세상에 가난한 이들이 더 적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유함은 일, 직업적 발전으로

얻어집니다. 오푸스데이는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성 호세마리아, 1967년 4월 24일).

가난의 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에도 행복하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두기 때문입니다. 검소함과 초연함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 12. 호기심과 절제.

바라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와 식탐가는 우아한 연회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신문의 1 면이나 석양을 바라보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시선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관조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을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조하는 시선은 이기적이거나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다.

절제의 덕은 우리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관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절제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절도 없음입니다. 성 요한이 “눈의 욕망”(1 요한 2,16)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내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마태 6,22).

반면에 호기심은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놓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서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헤맽니다. 방향 없이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거하는 능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요제프 피퍼, “기본 덕목들”, 241). 우리 자신 안에는 흥미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밖에 있었고,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추한 모습으로 나는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것들이 나를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X).

방향 없이 항해하는 그 호기심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기분전환! 기분전환이 필요하다니! 그리하여 사물의 이미지를 들여놓으려고 눈을 크게 뜨거나, 아니면 근시라서 아주 가느다랗게…. 다 닫아버리십시오! 내적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꿈꾸지 못했던 색채와 전망을 가진

더 나은 세계, 새로운 세계의 경이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하느님과 사귀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것이고, 하느님을 더욱 닮아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대의 형제인 모든 사람과 우애를 한층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길, 283 항).

물론 현실과 뉴스를 알아야 하지만, 우리의 내적 세계를 가난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외부로 향한 시선은 좋게든 나쁘게든 우리의 내적 세계를 형성합니다.

## 이기적인 시선.

먹이를 찾는 동물의 시선과 비슷한 이기적이고 소유적인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있는 시선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방식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익만 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이득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절제 없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식탐가는 미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풍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마음은 진짜 보물이나 거짓 보물에 집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거나 게으르고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있습니까! 이 귀중한 가치가 왜곡되거나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웃을 도구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때 일어납니다”. (프란치스코, 2015년 1월 31일).

## 절제의 열매

절제는 해방시키고, 마음을 정화하며, 사람과 사물과의 평온한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우리 안에서 진실한 관심의 태도를 키웁니다. 이것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처럼 현실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뉘앙스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제의 또 다른 열매는 우리가 세운 계획에 힘을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일이나 공부 중에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제는 우리가 집중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수천 가지 일에 흠여지게 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예”다. 이 노력은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깨끗한 시선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식한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요제프 피퍼, “기본 덕목들”, 249).

절제 있는 사람은 사물의 더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저의 하느님! 제가 보는 모든 것에서 은총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담금질, 415 항).

## 13. 용기

시몬의 집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마태 8,19).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스승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마태 8,20).

이 말씀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항상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경우에 어려움, 피로, 자신이나 남의 결점, 오해, 잘못된 이해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용기의 덕이 결정적입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천상의 행복은 지상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듭니다." ("사랑의 담금질", 1005). 이것은 성 호세마리아께서 자주 반복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루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역경들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그러한 복잡한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용기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꿔 줍니다.

때때로 불필요한 것들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흔한 어떤 안락함과, 또한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만들어낸 다른 필요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충분히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순간이 우리의 미소를 앗아가지 않고, 피로가 우리를 빨리 쓰러뜨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개인적인 변덕을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중이 그분의 기적에 열광하여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승리주의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셨던 광야에서처럼, 그분은 자유로우셨고, 그분의 자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내 열정, 내 야망, 재물, 유행의 노예인가?"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4월 13일).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 줍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요롭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요로움과 궁핍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1).

## 때때로 최선의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가치 있는 것들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학업을 마치거나 자신의 성격

결점을 극복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꾸거나 하느님과의 우정 안에서 성장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용기는 단지 거슬러 가는 피곤한 노력만이 아닙니다.  
극복하기 위한,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앞에서  
불평하지 않기 위한 의지의 훈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확신을 강화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사랑을 항상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심지어 기쁘게,  
점점 더 쉽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약한 사람은 거친 말을 피할 수  
없거나, 피곤할 때 미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로가 그의 반응에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은 피로를 극복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변덕을 포기하고,  
시간에 일어나고, 불평하지 않으며,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락함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루카 9,2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마태 7,13). 이것들은 의미 없는 고통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큰 자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밭고랑”, 795). 그리스도인의 길은 점점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시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필요할 때 단순히 고통을 받아들이시며, 그것이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 끝까지 나아가기 위한 인내.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련을, 수련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2-5).

자유롭게 받아들인 모든 희생, 반항 없이 맞이한 모든 모순, 사랑으로 이룬 모든 극복은 우리의 용기를 확고히 합니다. 그러면 일상의 투쟁은 점점 더 쉬운 정복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은 즉각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나 일의 결실이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때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인내는 단순한 낙관주의도 체념도 아닙니다. 이 삶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4).

## 14. 하느님과 의 정의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나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일 것입니다(마태 20,1-16).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일하러 보냅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동틀 녘부터 수고한 사람들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첫째로, 몇 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다른 일꾼들과 같은 임금을 주기 때문이고, 둘째로, 첫 시간부터 일한 사람들은 합의된 임금 외에 추가 금액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태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높이고자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늦게 오거나 착한 강도처럼(루카 23,43)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만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의미와 함께,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의의 덕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고대 저자들에 따르면,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 그에게 해당하는 것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정의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은 정확히 받을 자격이 없는 은사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엄격히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섰다는 인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좌표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인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가 말하듯이, "그대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 코린 4,7). 우리의 생명 자체가 순수한 받을 자격 없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이 정당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는 그분의 행동 방식을 판단하는 것과 잘 맞지 않습니다. 때때로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할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축복받았다고 믿거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불공평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면서도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관대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꾼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먹을 무언가를 갖게 되어 기뻐하는 대신에,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실망스러워 슬퍼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행동과 부작위의 결과인 악에 대해 하느님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자녀로 아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앞에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동시에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는 제가 좋은 손 안에 있고 결국 모든 것이 선을 위한 것이 될 것임을 압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며,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 하느님의 정의를 언급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정의를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취소되고 배상은 권리를 회복합니다."(베네딕토 16 세, 희망으로 구원된,

43 항). 비유의 주인처럼,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잘 일한 사람에게 보상하십니다. 동시에, 하느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항상 회개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성 호세마리아가 쓴 것처럼, "하느님은 관대함에서 지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담금질, 623 항).

## 15.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의.

일반적으로 정의는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보다는 차이점을 더 부각시킵니다. 애덕이 일치를 추구하는 반면, 정의는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애덕과 정의의 관계는 더 미묘합니다.

정의는 재화의 올바른 분배, 계약과 말의 이행,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존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우리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있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일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얻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리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친구들”, 171 항).

바로 이것이 포도밭 주인이 일찍 온 일꾼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마태 20,13-15).

때때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미리 평가절하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평등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애덕의 으뜸가는 길이며,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베네딕토 16 세, “진리 안의 사랑”, 6 항).

이 덕목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있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존재 방식을 밖으로 드러낼

권리가 있으며, 우리 자신의 선을 실현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정당한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한 넓은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면을 보게 됩니다" (페르난도 오카리스, 2018 년 1 월 9 일, 13 항).

예를 들어, 직원이 수행한 일에 상응하는 금액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을 보상하는 상여금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불공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밭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불함으로써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독특한 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한 사람들은 정확히 합의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이 공정하다고 여긴 것을 받았습니다. 하느님도 이러하십니다.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공정한 분이시지만, 또한 너그러우신 아버지시며, "미소 하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작은 사랑만으로도 친구의 영혼에 당신의 은총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의 길”, 제 5 처).

## 16. 신중함의 지덕. 일을 실천에 옮김. 좋은 소망을 이행함

1627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는, 어둠 속에서 탁자 앞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주위에는 금화와 재산 증서가 쌓여 있습니다. 물건들 사이에 놓인 시계는 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시력이 약해 안경을 쓰고 있으며, 한 손으로 가리고 있는 촛불로 탁자와 자신의 소유물을 비춥니다. 곧 꺼질 미약한 빛으로 말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재물을 쌓으려 했던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상상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합니다." (루카 12,16-21).

하느님께서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 신중함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충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그 재능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것, 즉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많은 선행에 쓰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물이 정말 무엇인지, 사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몰랐다.

## 거짓 지덕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이 실제로 어떠한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덕은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돕습니다. 지덕은 어떤 목적이든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두 가지 거짓 지덕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과 물질적 재화만 바라보는 "욕에 대한

생각"(로마 8,6)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활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참된 지덕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현할 올바른 수단을 선택하도록 실천 이성을 이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6).

참된 선을 식별하려면 참된 선을 사랑하고 원해야 합니다. 교육과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거기서 참된 선을 사랑하고 맛보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덕은 행동을 현실과 연결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최선을 결정합니다.

## 숙고하기. 생각하며 멈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중함의 지덕에서 세 가지 행위를 구별한다. 숙고, 결단, 명령. 처음 두 가지는 이성에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 (신학대전 II-II, q. 47, a. 8).

이 세 가지 행위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마태 25,1-13).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신랑이 늦을 경우를 대비해 등을 위한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기름을 챙기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바심에 휩쓸리거나 놀이와 웃음에 끌려 그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어리석은 처녀들은 숙고의 부족과 경솔함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나중에서야 기름을 구한 후 문 앞에 도착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으나 주어진 것은 가혹한 대답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릅니다."

잘 행동하려면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의 비슷한 경우를 기억하여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덕에 관한 일에서는 항상 스스로 충분한 사람은 없다." (J. 피퍼, 근본 덕, p. 49).

좋은 의도나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1)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을 자세히 연구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말을 듣고, 성급함을 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긴급한 것이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우 긴급한 것이라면 기다려야만 합니다."(성 호세마리아의 추억, 마드리드, 2000, p. 165).

또한 호세마리아 성인은 영적 지도자 같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결단하기. 길을 선택함

숙고한 후에는 결단해야 합니다. 부활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아주 일찍 무덤에 갔다: "무덤

입구에서 저 돌을 누가 우리에게 굴려 내 주겠습니까?" (마르 16,3). 그들은 해결책을 몰랐지만, 무덤으로 갔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어려움이 곧바로 보이지만, 사랑이 있고, 대담함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누가 돌을 치울 것인가? 그녀들만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아들이야, 너와 나, 우리의 망설임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여인들의 결단력과 대담함, 용기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돌이 이미 옆으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르 16,4). 항상 그렇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실행하기로 결단하면, 어려움은 쉽게 극복됩니다." (성 호세마리아, 묵상, 1959 년 3 월 29 일).

무한정 숙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유부단함은 신중하지 못한 것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이전의 숙고를 무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식별하고도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하기 싫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또는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워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도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일! 때로는 신중함이지만, 많은 경우 패배자들의 부사입니다"(성호세마리아, 길, 251 번).

가질 수 없는 확실성을 기다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완전한 확실성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또는 그 시간이 우리를 위해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 행동으로 옮기기

산상 설교의 끝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마태 7,24-26).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고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급함과 우유부단함, 또 장애물 앞에 멈춰 서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태만들 또한 신중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할지 천천히 생각한 다음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망설임 없이... 배려 없이... 그러지 않으면 시스네로스도 시스네로스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아우마다의 데레사도 성녀 데레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로올라의 이냐시오도 성 이냐시오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대담함!" (길, 11 번).

우리는 결단한 것을 실행할 때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실행의 때가 아닌 다른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가 결과가 더 나빠지거나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함의 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소망이 실현될 것이다. (마태 5,16):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